

광주시, 한파 대비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구청·소방본부와 합동 대응 수도 동파 복구반 상시 가동 해빙기 대형공사장 점검도

오는 7일까지 한파와 강설이 예보됨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가 선제 대응에 나선다. 먼저 재해대책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말에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업부서는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 대기하는 한편 기상청의 한파대설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한파 및 강설 대비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

시는 강설과 함께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5개 자치구 소방서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긴급구조 등 소방·방재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눈이 내리면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상수도 동파에 대응할 응급복구반도 상시 가동한다. 자치구 동 주

민센터와 협업해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활용해 대비에 재해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및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는 7일 이후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공사장·축대·옹벽 등이 약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3월 30일까지 해빙기 시설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상황실의 상시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지반침하, 붕괴 등 불시에 찾아오

는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대형건설공사장 중 공정을 50% 미만의 현장 53곳과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집중관리대상 시설 옹벽·석축 등 25곳, 급경사지 143곳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에 건설현장 관계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건설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와 사고대처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 재난예방과(062-613-2690)나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에서 시민의 신고도 접수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자체 평가 광역시 부문 3위

행정 부문 1위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회 등이 주최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 특별·광역시 부문에서 광주시가 3위를 차지했다. 행정, 재정, 경영, 주민만족도 등의 항목 평가 중 행정 평가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였다.

4월 광주시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서울, 울산 등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3위에 올랐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재정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면서 서울, 울산에 밀렸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시민의 안전, 국가 안전, 안전도시 사업, 광주형일자리 사업,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등의 시책이 행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문화관광, 안전, 교육, 경제분야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주민만족도 역시 3위로, 시책의 체감정도, 단체장의 청렴수준, 지역발전 기여 정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게미맛집’ 5곳 현판식 시, 홍보·컨설팅 집중 지원

광주시는 지난 2일 맛의 고장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맛이 뛰어난 음식점으로 선정된 ‘광주게미맛집’ 5곳의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게미’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 또는 그 음식 속에 녹아있는 독특한 맛이란 뜻의 전라도 방언으로, 지난해 12월 명화식육식당, 해남성내식당, 김가원, 매월흑염소가든, 돌담 등을 대표음식점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 음식점의 명소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온·오프라인 홍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스토리텔링 작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광주게미맛집의 명소화를 위해 음식점 컨설팅 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게미맛집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해 음식점 홍보와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가까운 지진대피소 확인해 두세요”

안내표지판 172곳 설치

광주시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사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내 지진대피소 172곳에 지진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현재 광주시 관내 지진대피소는 총 172곳으로 이 가운데 옥외대피소는 광산구 장덕공원 등 옥외대피소 142곳, 실내구호소는 서구 빙고을체육관 등 30곳이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등 1억5000여 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부터 야간에 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광반사지

표지판을 제작했다. 광주에서 지난 1978년 지진관측 이후 총 5회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2013년 6월8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의 지진이 동구에서 발생했다.

이런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시민행동요령 교육 및 대피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광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발생 시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대피소 위치를 한 번쯤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설 물가 안정 캠페인 광주시는 지난 2일 남구 무등시장에서 광주YWCA,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합광주지회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불공정 상거래 방지와 가격표시제 준수를 위한 물가안정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설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15곳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시 제공>

광주 운전자 절반,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광주시는 4일 “지난 1월 2018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32만 7000여 건, 943억5200만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94억원에 비해 149억원, 18.8%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월말 기준 광주시 등록 자동차 65만988대의 50.2%에 해당되는 규모로 광주시민 2명 중 1명은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2016년 19만6514건, 2017년 26만830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은행예금 금리와 비교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연세액의 10%나 돼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0%, 9월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납부 가능하다. 신청은 5개 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강영숙 시 세정담당관은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이후 과세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찾아가는 무료 수돗물 검사 이용하세요

상수도 5개 사업소 신청 가능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직접 찾아가 가정에 수돗물을 채수, 검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현장 수질검사’ 무료 서비스를 2월부터 연중 실시한다.

지금까지 환경부 ‘물사랑 홈페이지’에서 제한적으로 수질검사 요청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안내했으나, 올해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을 찾아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바로 통보해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

획이다. 찾아가는 현장 수질검사는 거주지 관할 상수도 5개 사업소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단독주택 세대 접수 후 대장지를 선정해 본부 직원이 직접 방문,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 검사성적서를 검사 당일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는 원스톱방식으로 진행된다.

2월에는 동구 7~8일, 서구 13~14일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062-609-6300)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5억(조정가)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